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6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과장(2110-5591), 김상효 사무관(5593)
에너지절약정책과 이상훈 과장(2110-4872), 한주현 사무관(4874)

산업부, 지역실물경제 동향점검 및 하계전력위기 대비 지자체 에너지절약 협조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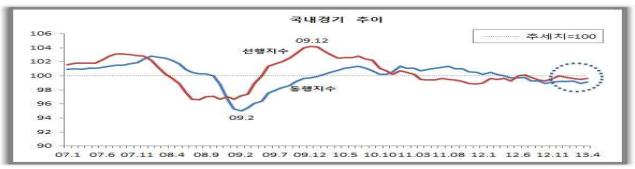
□ 산업부는 5일 오후, '지역실물경제 동향점검 및 하계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'를 개최하였음

□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실물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, 그리고 하계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에 에너지절약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

○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,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, 설문식 충북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17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과 산업연구원, 코트라, 무보, 에관공 등 지원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

1. 지역실물경제 동향 점검 관련

□ **(우리경제 현황 및 전망)**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아 소비, 투자 등 실물경기가 소강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, 엔저 등 추가적 악재에 봉착해있는 상황



○ 세계경제는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에도 미국경제의 회복세, 교역량의 증가,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,

○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, 최근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등의 정책조합(policy mix)들의 긍정적 측면과 중국경제의 회복지체, 엔저영향의 파급효과 등의 부정적 측면의 상호크기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

□ **(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)** 금년 초(1~4월) 지역경제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북·광주지역의 실물경제는 다소 양호한 반면, 울산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짐

○ **(생산)** 전년동기 대비 충북(6.7%), 경기(5.1%), 부산(3.9%) 순으로 증가한 반면, 경북(△8.0%), 전남(△7.0%), 서울(△6.5%) 순으로 부진

○ **(수출)** 전년동기 대비 충북(14.1%), 광주(13.9%), 강원(12.2%) 등의 실적이 양호한 반면, 경남(△23.4%), 대전(△18.3%), 전북(△17.0%) 순으로 감소

○ **(고용)** 전년동기 대비 충남(7.8%), 전북(4.5%), 강원(4.2%) 순으로 컸던 반면, 경기(△0.7%), 울산(△0.5%) 등은 감소

○ 향후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지역경제도 회복세가 예상되나, 지역별로 회복세의 차이가 예상됨

-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경남, 전북의 경기회복세는 유럽의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

* 유럽수출액/전체수출액 비중(2011년 기준) : ① 경남(28.1%) ② 전북(22.5%)

-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, 철강, 가전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엔저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역경제의 회복은 그만큼 더딜 것으로 전망



□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여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,

○ ▲ KOTRA 충북무역관 설치(충북), ▲ 중소기업 FTA 전문인력채용 보조(경북), ▲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(인천), ▲ U턴기업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(경기), ▲ 지열발전소 건설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개정(광주) 등을 산업부에 건의하였음

□ 이와 관련, 김재홍 1차관은 '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상호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'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

○ 그간 실물경제동향 점검이 주로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금번 회의는 최초로 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,

○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

- 지자체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투자활성화 노력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

2. 하계 에너지절약 관련

□ **(전력수급 전망)** 산업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경기효과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원전 3기 정지여파로 전력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금번 하절기에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

<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> (단위 : 만kW)

구분	'12년		'13년 여름 (8월2주)	증감 ('12년 여름대비)
	여름(8.6)*	겨 울 (1.3)		
공급능력	**7,708**	8,071	**7,672**	△ 36
최대수요	**7,727**	7,827	**7,870**	143
예비전력	△ **19**	244	△ **198**	△ 179

* 대책 시행전 값. 실제수요는 7,429만kW, 예비력은 279만kW 기록

○ 이에 정부는 정지한 원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수급 관리 방안* 마련

*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반기 전력수급대책 발표

□ 김재홍 1차관은 올 여름철 전국적인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자체의 에너지 절약 활동, 비상발전기 가동체계 점검 등이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각 부문별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이행해 줄 것 당부

○ 전국적인 전력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하여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실시할 것 요청

- 전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28℃ 이상 유지 및 7~8월간 月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% 감축하고,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도 전년 동월 대비 20% 감축

○ 그리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전력 수급 대책 기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올바른 에너지 소비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고려,

- 금년 여름철에는 전년 하계 보다 지자체에서 강력히 단속해 주기를 요청

*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과태료 부과 (피크시간대 중대형 사업장 중심 단속)

< 참고 >

지역경제동향 점검 및 하계절전 지자체 간담회

□ 간담회 개요

○ 일시·장소 : '13.6.5(수) 14:00~15:45, 산업부 다산실(623호)

○ 참석자 : 총 27명

- 산업부(6명) : 제1차관(주재), 지역경제국장, 지역경제총괄과장, 에너지절약정책과장, 에너지절약협력과장 등
- 지자체(17명) :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
- 유관기관(4명) : KIET, 무역보험공사, KOTRA, 에관공

□ 세부계획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05(05')	모두 말씀	제1차관
14:05~14:15(10')	최근 경제동향 및 지역실물경제동향·전망	산업연구원
14:15~14:30(15')	하계 전력수급 전망 및 에너지절약대책	에너지절약정책과장
14:30~14:35(05')	지자체 협조 사안	
14:35~15:25(50')	시도별 동향 및 전망, 애로사항 건의	부단체장(각 3분내외)
15:25~15:45(20')	종합 토론	참석자 전원
15:45~15:50(05')	마무리 말씀	제1차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상효 사무관(☎ 02-2110-5593) 또는 에너지절약정책과 한주현 사무관(☎ 02-2110-48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